

작품 내용

제 목	공모전 응모를 망설이는 이유
내 용	나는 평소 공모전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분야의 공모전 요강을 자주 살펴본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주최 측은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는 공모전은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상작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남겨 두고, 주최 측이 홍보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사용권을 부여받는 방식은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는 건전한 운영 형태라고 생각한다.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공모전의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관련 내용을 뉴스 기사 등을 통해 접한 적이 있었지만, 올해 여러 공모전을 살펴보면서 우려스러운 사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최근 일부 공모전에서는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출품작의 저작권 또는 이용권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 공모전에서는 수상작이 아닌 출품작에 대해 주최 측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응모요강이나 서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지역 축제와 관련된 음악 공모전을 살펴보던 중, 응모작에 대한 활용에 동의해야 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보았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된 작품을 주최 측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잘못 이해한 줄 알았지만,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실제로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공모전이 적지 않았다. 공모전을 위해 곡을 완성한 적도 있었고 작사와 작곡, 영상 제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응모요강을 읽은 뒤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상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창작물에 대한 권리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음악뿐만이 아니었다. 수기나 산문 공모전 가운데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된다고 명시한 사례도 있었다. 물론 주최 측이 작품을 홍보나 출판에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작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없이 저작권 전체가 귀속되는 방식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공모전에 출품되는 작품은 단순히 몇 장의 원고나 몇 분의 음원, 영상이 아니다. 창작자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수정하며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낸다. 어떤 작품은 수개월의 노력 끝에 완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에 대한 권리는 그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도 연결된다.

저작권은 창작을 가로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렇기에 저작권 보호는 단순히 일반 시민이 불법 복제를 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을 모집하는 기관과 단체 역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공모전의 운영 방식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응모자가 권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공모전은 창작자에게 진정한 기회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함께 확산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다.